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9.2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5	8	9	10	11	12
13	12	15	16	17	18	19
20	19	22	23	24	25	26
27	26	29	30			

원/달러 환율

1,365.10원 (+6.70원)

KOSPI

6,889.74 (-191.18, -2.70%)

KOSDAQ

846.59 (+2.10, +0.25%)

국고채 10년 금리

4.539 (+0.147%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실적 차별화 VS 투자 불확실성 [박승진]
DIN (Doo It Now)	외교가 번 시간, 실적이 답할 차례 [김두연]
ETF Weekly Letter	금리를 이겨낼 성장 [장치영]

기업분석

SNT모티브	자기주식 10% 소각 [송선재]
브이티	미국/유럽 진출 사업성 확보 중 [박중대]
두산	전방 수요 지속 상향조정 중 [김민경]
삼성전기	다시 이익 상향조정 구간 진입 [김민경]

산업분석

자동차	유럽 자동차 판매 동향(2026년 8월) [송선재]
운송	VLCC 시장 초과열, 한국 선사에게도 기회의 장 [안도현]

Monthly & Weekly

2차전지	7월 ESS Battery : 북미 누적 +30% 성장 [김현수]
건설	관심주제: 원전, 데이터센터, 공공주택 [김승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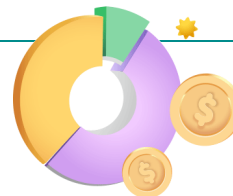
단기투자유망종목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두산, DN오tom티브, 세아베스틸지주, 해성디에스, 올릭스,
RFHIC, 티앤엘, 더블유씨피

하나증권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9.28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실적 차별화 VS 투자 불확실성

금리 상승 요인들 누적. 실적 차별화 VS 투자 불확실성의 줄다리기가: VOO/QQQ, FTXL, QUAL, POWER/GRID, PAVE 등 활용

- 글로벌 수급:** 일회성 수급 요인의 영향으로 주식형 ETF 시장과 채권형 ETF 중심의 괴리가 다시 한번 크게 벌어졌다. 직전 주간에 대규모 투자 자금이 유입되었던 북미 주식형 ETF 시장에서 -183.6억달러의 자금이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은 주간에 자금 순유출을 기록하였다. 신흥국 아시아 주식형 ETF 시장에서도 -31.5억달러의 자금 유출이 동반되었다. 반면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 북미지역 채권형 ETF 시장으로 +129.6억달러, 신흥아시아 채권형 ETF 시장에는 +57.5억달러가 유입되면서 총 +205.4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 종목별 수급:** 미국 ETF 시장의 종목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분기말 자금 이동의 영향과 더불어 금리 부담 재개에 의한 포지션 재조정 작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주식형 ETF 종목군에서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IVV/SPY/SPYM으로 총 +593.9억달러가 유입된 동시에 VOO에서는 -449.4억달러의 자금 유출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주식형 ETF 종목군의 경우 CORO/ACWX(미국 외 세계중시), QQQ/QQQM(NASDAQ100), BLCR(미국 대형주 액티브), ARKK(혁신기업) 등의 종목들이 자금 유입 상위 종목 리스트에 자리하였다. 반면 SPMO/MTUM(모멘텀), COWZ(편더멘탈), SMH(반도체), SCHX(소형주), SCHG(대형성장주), MOAT(경제적해자) 등에서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며 차별화된 수급 흐름이 나타났다.
- 채권형 ETF 종목군의 경우** ISUB/BND/ACG(US Total), GGOV(글로벌 국채), MUB(지방채), SGOV(초단기국채)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며, MBB(MBS)와 TLT(장기국채), VCLT/IGLB(장기IG회사채), EMB(EM달러채), LMUB(장기지방채) 등에서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갔다. 대표적인 금 현물 ETF인 GLD와 GLDM, IAU에서는 자금 흐름이 순유출로 전환한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종목군인 IBIT, FBTC 등으로는 투자자금이 순유입 전환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대내외 정치 이슈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들이 확인되는 시기이다. 8월 PCE 물가지수(9/30)와 9월 ISM 제조업지수(10/1), 9월 고용보고서(10/2)가 연이어 발표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AI 기업 CEO들의 회동, Micron/Accenture/Nike의 실적 일정까지 예정되어 있어 물가, 고용, 금리, AI 투자 사이클을 동시에 확인하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 8월 PCE 물가지수의 경우 Headline과 Core PCE가 각각 전월대비 +0.4%와 +0.3%, 전년대비 +3.7%와 +3.3%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경계가 지속될 수 있다. 개인소득과 개인소비 역시 각각 전월대비 +0.5%, +0.9%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소비가 견조한 가운데 물가 압력까지 지속되는 조합이 확인될 경우 국채금리 상승과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PCE 산정방식 개편도 함께 반영된다. 포트폴리오 관리·투자자문 서비스, 법률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액세서리 등의 가격 산정방식이 조정되면서 과거 근원 PCE 상승률이 연간 기준 약 -0.1%p ~ -0.2%p 낮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전년대비 수치뿐만 아니라 개편 이후의 물가 추세와 최근 3개월~6개월 연을 추이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개편은 통계상 물가 수준을 일부 낮출 수 있지만, 실제 수요와 임금·서비스 물가 압력이 완화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 지난 8월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고용보고서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전월의 +16.2만명에서 +9.0만명 수준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는 한편, 실업률은 4.1%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컨센서스 대로 경제활동 참가율(61.7%)과 임금상승률(MoM +0.3%, YoY +3.2%)의 견고한 흐름까지 동반될 경우 고용 증가폭이 둔화되더라도 경기침체보다 고용시장 정상화에 가까운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고용과 임금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타된다면 PCE 상승과 맞물려 연준의 추가 긴축 기대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급 부문의 인플레이션 요인에 의한 금리상승과 구분하여 증시 영향(실적 평가 차별화↑)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반도체 섹터는 Bottom-up 관점에서 가장 강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영역인 동시에, 금리와 연결되는 투자 사이클의 모멘텀에서는 가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양면성의 영역에 놓여있다.
- ISM 제조업지수도 경기와 물가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9월 ISM 제조업지수는 8월의 54.6pt에서 55.0pt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신규주문지수가 55.1pt로 추가 개선될 전망이다. 제조업 회복 역시 발전, 전력, 산업장비 등 AI 인프라 투자에 기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규 주문 중심의 지표 상승은 채권시장의 압박과 별개로 전력·인프라 관련 섹터의 기업들에 우호적인 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주요 AI 기업 CEO들이 AI 규제와 산업 육성, 전력·데이터센터 인프라를 논의하는 한편, Google이 추진하는 우주 태양광 기반 AI 인프라 프로젝트 'Project Suncatcher'의 프로토타입 위성을 탑재한 SpaceX 로켓 발사에 예정되어 있다. 두 일정 모두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미국의 AI 경쟁력 강화와 전력 병목 해소를 위한 정책·기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기업 실적에서는 9월 30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되는 Micron 실적이 중요하다. 역시나 시장의 관심은 단순한 실적 상회 여부보다 DRAM과 NAND 가격, HBM 공급능력, 데이터센터 수요 및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집중될 전망이다. 메모리 공급 부족은 출하량 확대를 제한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격과 수익성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가격과 마진 전망이 견조하면 Micron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글로벌 메모리 밸류체인 기업들 전반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 Accenture는 생성형 AI 관련 신규 수주와 기업들의 IT 컨설팅 지출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실적과 수주가 견조하면 AI 투자 사이클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Nike는 중국 수요, 북미 소비, 재고와 할인율, 관세 및 원가 부담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Nike의 실적은 소비재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과 글로벌 소비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
- 시장은 PCE와 고용지표를 비롯한 여러 이벤트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ETF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상황에 대한 평가 및 판단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Core 포지션은 VOO/QQQ 등 대표 지수형 ETF를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경제지표 발표 전후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전략이 적절해 보인다. 물가와 고용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장기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금융주 ETF인 KBWB와 헬리티 ETF인 QUAL/SPHQ/QGRO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 중국 정부의 Nvidia 칩 수입 허용과 Micron 실적을 계기로 메모리 업황과 AI 반도체 수요가 재확인된다면 SMH·SOXX·CHPX 등 대형주 중심 반도체 ETF가 우선적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금리 반락과 중소형 반도체주의 실적 확산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XSD·PSI를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시장 환경 하에서는 여전히 변동성 우려가 존재하는 선택지이다. 불확실성 경계를 고려한다면 펀더멘털을 편입 기준에 포함하는 FTXL도 살펴볼 만하다. 정책과 인프라 이벤트 측면에서는 CHAT·BAI와 같은 AI 액티브 ETF들을 통해 업종과 종목 비중 조절에 유연한 대응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실적 기대 관점에서는 IGV(소프트웨어)와 CIBR/BUG(사이버보안)도 유효 영역에 자리하고 있다.
- AI 연산 확대에 따른 전력, 인프라 병목에 주목한다면 POWR/GRID나 PAVE,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투자 관점에서는 리츠 비중이 높은 DTCR과 기술주 비중이 높은 TRFK를 투자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벤트 관점에서는 NASA와 UFO 역시 고려 대상 종목이다. 변동성 방어와 현금흐름 확보가 우선이라면 DIVO/QDVO 등 액티브 커버드콜 ETF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2026년 9월 29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DIN (Doo It Now)

외교가 번 시간, 실적이 답할 차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0월 시장의 이목은 외교적 기대에서 기업 이익으로 이동한다. 미중 정상회담은 해법보다 유예에 가깝다. 사우디 원유 수출 회복에도 호르무즈 불안과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가 10월 증시를 누른다. 그러나 AI 메모리는 이익과 현금을 확인하며 모아갈 산업이다. 마이크론 실적과 차기 전망을 확인해 조정 시, HBM을 위시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분할 매수하고, 전력 인프라와 은행을 보완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안한다.

미중의 합의는 해법보다 유예에 가까웠다. 양국은 11월 10일 끝날 무역 휴전을 2027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백악관은 비민감 품목의 쌍방 300억 달러 규모에 우대 관세를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실제 관세 인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두 정상은 11월 APEC과 12월 G20에 서로 참석할 의향을 밝혔지만, 두 행사에서 별도 양자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핵심 관세 및 첨단기술 갈등은 후속 협상에 달렸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는 국채금리 상승과 유가(경유) 부담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완화, 이른바 TACO 가능성을 높인다([DIN0908 참고](#)). 선거가 끝나면 즉각적인 정치적 압박이 줄어 정책 돌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말 정상의 외교 일정은 최악의 확전에 따른 비용을 높이는 정황이지만, 중동 분쟁의 종식을 보장하지 않는다. 10월은 '전면전은 피하되 공급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는 시기'이다. 외교는 지수 하단을 완충하고 초과수익은 실적이 입증되는 AI 산업에서 찾는다.

더 긴 그림자는 호르무즈와 연준이다. 중동 이슈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우회 수송에 적응해도 경유를 포함한 운송비가 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위험을 높인다. 글로벌 해운 및 물류 정보 전문기관인 Kpler에 따르면, 9월 사우디 원유 잠정 수출은 일평균 600만 배럴로 8월 340만 배럴 대비 76.5% 증가했다. 피격 뒤 걸프 연안 선적이 안부향 차질을 일부 상쇄했으나 9월 평균에는 피격 전 물량도 포함돼 지속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9월 호르무즈 통과 유조선 수는 일 평균 2.2척에 불과하다. 호르무즈 통과 원유 수출의 7일 평균은 1,320만 배럴로 전쟁 전 1,700만 배럴의 78% 수준이고, 해협 위험과 오만만 환적 병목이 남았다.

대체 공급의 관건은 미국산 경유다. 미국의 8월 경유 수출은 일평균 160만 배럴, 유럽향은 3분기 일평균 36만 배럴에 이를 전망(전쟁 전 25만 배럴)이다. 미국이 거론한 것은 경유 수출 제한으로 시행은 확정되지 않았다. 제한 시 유럽 연료비와 세계 경유 가격 상승, 미국 정유사의 가동 축소로 다른 제품 가격의 동반 상승 위험이 있다. 호르무즈 통항량, 사우디 선적, 미국 경유 재고와 유럽향 물량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할 시기이다.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연 kimdooun@hanafn.com
주식시황 RA 최욱 wookchoi@hanafn.com

한편, 10월 투자자들의 불안은 시장이 보는 금리와 연준의 금리가 다시 충돌하는 것이다. 연준은 9월 기준 금리를 25bp 올려 3.75~4.00%로 정했다. 경제전망(SEP)의 연말 금리 중간값은 2026년 4.1%, 2027년 4.1%로 각각 6월 전망(3.8%, 3.6%)보다 높다. 2026년 PCE 물가도 3.6에서 3.7%, 근원 PCE는 3.3에서 3.4%로 상향됐다. 연준과 시장의 금리 경로가 벌어진 상태에서 물가 재가속이 확인되면 장기물 금리 발작과 주식 할인을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과거 1970년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를 평균해 보면 금리인상 횟수는 6.5번, 인상 기간은 약 1년이다. 작금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공급측면을 넘어 수요측면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산 조짐이 있다는 워시 의장의 멘트들을 종합하면 연준의 기초 변화는 서비스업 가격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오랜 격언까지 감안하면, 연준의 변심은 대비가 필요한 요인이다.

워시 의장은 일상적인 포워드 가이드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단일 지표만 보고 기초를 바꿀겠다는 선언은 아니다. 미스터 마켓의 가격을 무시할 수 없지만 금리 경로는 추가 지표가 결정한다. 8월 ISM 서비스업 가격지수는 72.6으로 7월보다 2.3포인트 올랐고 경유와 휘발유가 상승 품목으로 지목됐다. 10월 5일 발표되는 9월 지수는 원가 전이의 조기 신호, 10월 7일 공개되는 9월 FOMC 의사록은 연준의 반응 함수를 가늠할 신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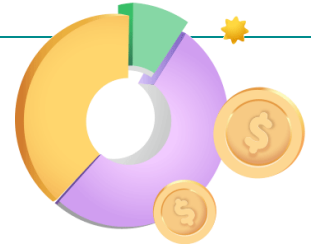
마이크론의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는 한국시간 10월 1일 오전 5시 30분에 예정돼 있다. 6월 회사가 제시한 4분기 매출 가이드는 500억 달러 내외이다. 매출총이익률은 약 86%다. 이미 확인된 3분기 조정 잉여현금흐름 183억 달러는 고금리에도 자체 투자 여력을 보여준다. 다만 4분기는 14주로 전분기보다 1주 길어 매출 증가를 모두 구조적 수요로 해석할 수 없다. 발표에서 2027 회계연도 1분기 매출과 마진 전망, HBM4 출하와 수율, 범용 DRAM 가격과 출하량, 그리고 설비투자 후 잉여현금흐름 등을 확인한다. 참고로 팬데믹 이후 마이크로 실적 발표날 주가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지만 이후 1개월 뒤에는 마이크로 주가, S&P 500, 코스피 지수 등 전부 상승했다.

원화 강세가 빠르면 수출주의 원화 환산 이익은 불리할 수 있다. 최근 한 달 이익 전망 상향과 12개월 선행 PER 연속 상승을 동시에 확인한 업종은 IT하드웨어, 반도체, 기계, 철강, 건설, 은행 등이다. 은행은 기존 수치가 뒷받침하는 보완 축이고, AI 메모리는 앞으로의 업황과 마이크로 전망을 확인하며 쌓는 전략 축이다.

외교가 번 시간은 유용하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불거지는 10월 초 지수 추격은 자제할 요인이다. 그러나 마이크로는 HBM 및 DRAM 수요와 차기 분기 이익 및 현금흐름의 지속성을 확인해주면(필자는 가능성을 높게 본다), 메모리와 AI 인프라는 변동성을 이용해 꾸준히 모아가야 한다.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10월, 중장기 투자 시계를 감안해 볼 때, 전략은 변함이 없다. 시대의 주식을 꾸준히 모은다.

ETF Weekly Letter

HANA Global Weekly | 2026.9.28



Global ETF 장기영 chiyoung.jang@hanafn.com

금리를 이겨낼 성장

뮤즈로 '딸깍'

- **금리 부담을 이겨낸 AI** 지난주 미 증시는 시장금리 상승에도 AI 대형주를 중심으로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며 주요 지수 모두 상승 마감. 미국 10년물 금리는 견조한 경제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등의 영향으로 5%를 상회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 다만, 금리 상승의 배경이 인플레이션보다는 양호한 경기와 성장에 있다는 인식이 위험자산에 대한 부담을 일부 상쇄시켜주었음. 이에 대형 성장주가 S&P500을 큰 폭으로 아웃퍼폼했으며, IT와 커뮤니케이션 등 성장 섹터가 강세를 시현. 반면 금리에 민감한 유틸리티와 부동산은 전주에 이어 수익률 최하위권에 위치
- **테마별로는 반도체(SMH +5.9%)와 AI-로보틱스(BAI +5.3%)가 강세.** 메타의 AI 에이전트 '뮤즈(Muse)'가 소비자의 검색·비교·결제 등을 대신하는 새로운 AI 서비스로 주목받으며 AI의 활용 영역 확대 기대가 높아졌고, 관련 컴퓨팅 인프라 수요 증가 기대도 부각. 빅테크(MACS +3.1%), 소프트웨어(IGV +1.6%), 사이버보안(CIBR +1.1%)도 상승. 반면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가스(XOP -4.8%)가 부진했으며, 은광(SIL -3.8%), 금광(GDX -2.7%), 은행(KBWB -2.3%), 우라늄(URA -1.8%) 등 원자재 및 금융 관련 테마가 금리 부담에 약세
- **주가와 자금의 온도차** 지난주 지수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으나 ETF 자금 흐름 상 시장참여자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인것으로 확인됨. 미국 ETF 시장에서는 주식형 ETF에서 316억 달러가 유출되며 한 주 만에 순유출로 전환. 테마별로는 빅테크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음. 빅테크의 주간 자금유입강도는 +10.13%로 전주(+6.05%)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7월 이후 가장 강한 유입세를 기록. 반면 반도체는 전주 +3.01%에서 -2.51%로 유출 전환했고, AI-로보틱스도 -1.45%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자금이 이탈. 한편 AI 인프라 관련 테마 가운데 전력 인프라는 8월 말 이후 꾸준한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6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 AI 관련 자금이 전반으로 확산되기보다는 빅테크와 전력 인프라 등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유입되는 모습
- **Issue** 9월 정기 리밸런싱을 거치며 주요 팩터 ETF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나타났음. 대표적인 모멘텀 ETF인 SPMO는 S&P500 내 최근 1개월을 제외한 12개월 위험조정 가격 모멘텀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는데, 8월 말 기준 재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이 편출되었고 애플, 알파벳 등이 신규로 편입되었음. 기술주 전체 비중은 53%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Dell Technologies, Marvell, Lumentum 등 AI 인프라와 Palo Alto Networks 등 사이버보안 종목이 편입되며 AI 반도체에 집중됐던 기술주 모멘텀이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등으로 다변화되는 모습. 동시에 헬스케어(+3.2%p)와 에너지(+2.1%p) 비중이 확대됐으며, Valero Energy, Marathon Petroleum 등 정유주가 신규 편입됐음. 한편 FCF Yield가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COWZ는 에너지 비중을 14.8%에서 22.2%로, 산업재를 9.0%에서 12.4%로 확대한 반면 헬스케어는 19.0%에서 14.1%로 축소했음. 가격 모멘텀과 현금흐름이라는 서로 다른 팩터 모두에서 최근 에너지 섹터 비중 확대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표 1. SPMO(모멘텀 ETF) 9월 리밸런싱 전후 섹터 비중 변화

섹터	리밸런싱 전	리밸런싱 후	변화(%p)
기술	52.1%	53.2%	1.1
헬스케어	7.3%	10.5%	3.2
통신서비스	8.1%	8.9%	0.9
산업재	13.6%	7.9%	-5.7
금융	5.9%	6.8%	0.9
에너지	3.5%	5.6%	2.1
필수소비재	4.3%	2.5%	-1.8
부동산	1.0%	2.1%	1.1
자유소비재	1.2%	1.2%	0
소재	1.8%	0.5%	-1.2
유틸리티	1.1%	0.2%	-0.9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표 2. COWZ(현금흐름 ETF) 9월 리밸런싱 전후 섹터 비중 변화

섹터	리밸런싱 전	리밸런싱 후	변화(%p)
기술	21.2%	20.0%	-1.3
헬스케어	19.0%	14.1%	-4.9
에너지	14.8%	22.2%	7.4
통신서비스	14.8%	13.6%	-1.2
산업재	9.0%	12.4%	3.4
필수소비재	9.3%	7.5%	-1.8
자유소비재	7.4%	5.9%	-1.5
소재	4.1%	4.2%	0.1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6년 9월 29일 | 기업분석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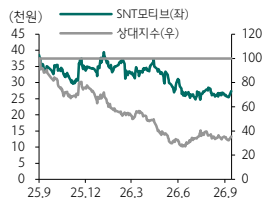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44,000원(상향)**
 현재주가(9.28) **27,4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89.74
52주 최고/최저(원)	39,450/24,650
시가총액(십억원)	727.2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26,540.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8.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8
외국인지분율(%)	12.12
주요주주 지분율(%)	
SNT홀딩스 외 1인	46.29
국민연금공단	8.4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033.9	1,139.5
영업이익(십억원)	106.3	119.7
순이익(십억원)	93.3	103.1
EPS(원)	3,520	3,889
BPS(원)	44,813	47,372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968.9	1,006.4	1,030.1	1,120.2
영업이익	98.1	102.6	104.4	114.2
세전이익	131.7	93.6	120.2	131.0
순이익	104.3	69.6	91.0	99.2
EPS	3,932	2,623	3,430	4,163
증감율	19.99	(33.29)	30.77	21.37
PER	5.65	13.15	7.43	6.13
PBR	0.54	0.81	0.61	0.52
EV/EBITDA	0.84	3.51	1.87	1.48
ROE	10.82	6.97	8.76	9.07
BPS	41,318	42,410	41,714	48,912
DPS	937	1,700	1,700	1,7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SNT모티브 (064960)**자기주식 10% 소각****주식수 감소를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4.4만원으로 상향**

SNT모티브에 대한 투자 의견 BUY를 유지한 가운데, 발행주식의 10.2%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270.6만주의 소각을 반영해 2027년 이후 EPS를 상향하면서 목표주가도 기존 4.0만원에서 신규 4.4만원(목표 P/E 11배 유지)으로 상향한다. 자기주식 전량 소각으로 재무각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의 전용 가능성이 사라졌고, SNT홀딩스의 동시 소각은 그룹 차원의 주주환원 정책을 시사한다. 하반기 성장성도 개선된다. 2분기 부진의 원인이었던 방산 수출은 하반기에 납품이 재개되고, 반도체장비는 전방 수요 호조로 2026년 매출액이 32% (YoY) 증가할 것이며, 친환경차 모터도 고객사 생산 확대에 성장률이 회복된다. 2027년부터는 외형이 한 단계 확대될 것이다. 현대모비스향 제동 모터(연 300억원/8년), 현대차향 EOP(연 200억원/5년), 현대트랜시스향 구동모듈(연 2,000억원/10년) 등 신규 매출원들이 순차적으로 가세하는데, 온기 반영 시 합산 2,500억원으로 2025년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성장성 회복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다. 2027년 예상 EPS 기준 P/E 6배 초반, 기대배당수익률은 6.4%이다. 2026년 성장률이 둔화되어 보이는 현시점이 매수의 기회라는 판단이다. 리스크는 스맥 지분 취득에 따른 자금 유출과 방산 수출의 추가 지연 가능성이다.

자기주식 270.6만주(발행주식의 10.2%) 소각할 예정

SNT모티브는 기취득 자기주식 270.6만주(발행주식 2,654만주의 10.2%)를 10월 12일부로 소각할 예정이라고 9월 28일 공시했다. 소각 금액은 직전 영업일인 9월 23일 종가 25,500원 기준 690억원이며, 소각 후 발행주식총수는 2,383.4만주로 감소한다. 이번 소각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어서 현금 유출이 없고 자본금도 감소하지 않는다. 자본총계 1.04조원과 순현금 구조(3,500억원)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당 재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기대 배당수익률 6.4%도 소각 이후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재매각되거나 인적분할 및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소각으로 관련 우려가 사라지면서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도 제거된다. 셋째, SNT홀딩스(SNT모티브 지분 45.12% 보유)도 발행주식 1,630.4만주의 8.6%에 해당하는 자사주 140.8만주(소각 금액 640억원) 소각을 결의했다. 지주사와 핵심 자회사가 동일한 이사회 일자와 소각 예정일로 움직인 것은 그룹 차원의 주주환원 정책 전환으로, 자본배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한다.

SNT로보틱스를 11월 3일부로 흡수합병할 예정

SNT모티브는 11월 3일부로 100% 자회사 SNT로보틱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SNT모티브의 기존 정밀제조/모터/구동/액추에이터 기술을 통해 SNT로보틱스의 로봇 완제품 개발 역량을 높이고, 부품 공급자에서 완제품 사업자로 확장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SNT로보틱스는 2025년 7월 설립 이후 매출이 없고, 목표 중인 산업용 다관절 로봇 및 특수 목적 로봇(군사용/재활용 로봇)도 구체적인 제품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개발과 수주가 가시화될 경우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Not Rated

현재주가(9.28) 11,51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46.58
52주 최고/최저(원)	31,100/10,720
시가총액(십억원)	402.2
시가총액비중(%)	0.08
발행주식수(천주)	34,941.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04.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6
외국인지분율(%)	5.80
주요주주 지분율(%)	
정철 외 1인	29.25
강승곤	5.5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523	610
영업이익(십억원)	60	88
순이익(십억원)	47	68
EPS(원)	1,288	1,889
BPS(원)	8,579	10,545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240	296	432	437
영업이익	24	46	111	83
세전이익	14	42	134	81
순이익	11	27	98	61
EPS	323	776	2,739	1,713
증감율	909.4	140.2	253.0	(37.5)
PER	16.3	21.0	14.6	10.2
PBR	1.7	4.1	6.0	2.5
EV/EBITDA	6.3	10.7	11.9	6.5
ROE	14.4	23.3	42.2	25.1
BPS	3,158	3,993	6,631	7,074
DPS	0	0	0	0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

2026년 09월 29일 | 기업분석

브이티 (018290)**미국/유럽 진출 사업성 확보 중****2분기 매출 회복세 긍정적**

2분기 국내 드렉스토어 매출이 좋았다. 올영픽 셀인/셀아웃 모두 기록을 세웠다. 자외선차단제 신규 출시로 마케팅비가 늘었지만, 마진도 나쁘지 않았다. 다이소는 PDRN 광채 라인 매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규 바디 라인 출시 효과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2분기까지 일본 매출은 감소했고, 미국 매출은 전년도 2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코스트코 PDRN 듀오팩 매출이 컸지만(약 30억원), 전년도 2분기 얼타뷰티 초도 매출(40억원 이상)이 높은 베이스로 작용했다. 아마존은 상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이리프트/헤어케어 라인이 새로 매출을 쌓아가고 있다. 프라임데이 매출(약 30억원 이상)은 대부분 7월로 이월되었는데, 비용은 2분기에 반영되면서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러시아 매출이 작년 3분기부터 꾸준히 증가, 2026년 들어 분기 매출 7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쇼피는 30억원 이상 매출을 이어갔다. 영업이익률이 8.1%로 크게 떨어졌는데, 브이티 재팬에서 재고 적채로 연결 매출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3분기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YoY 증익 전환 가능성

3분기는 일본 제외하고 전 권역이 QoQ 매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자외선차단제와 아이리프트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는 올리브영뿐 아니라, 다이소도 신규 SKU가 없어지고 있어서 QoQ 매출 증가가 가능해보인다. 일본은 아직 미진하지만 주력 제품 매출이 점진적인 회복세에 있다. 아마존 매출은 프라임데이 매출 효과로 90억원 이상 가능해 보이며, 오프라인은 코스트코 리들샷 솔드아웃 재발주 물량이 최소 20~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2분기 수준 매출, 유럽은 터키가 좋아, 그라티스 채널에서 매일 10억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2025년 3분기부터 유럽 5개국 아마존을 운영했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확장 중이다. 유럽은 분기 매출 7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주력은 역시 리들샷이다. 중동도 분기 매출 10억원 미만에서 2분기 이후 40억원으로 올라왔다. 영업이익률은 광고선전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별도 영업이익률 17%, 연결 영업이익률은 11.8%로 예상된다. 연결 영업이익이 YoY 28% 증가하면서 5개 분기만에 증익 전환할 것으로 추정한다.

2026년 9월 28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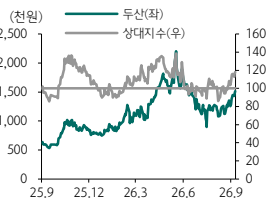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2,420,000원
현재주가(9.23) 1,512,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7,080.92
52주 최고/최저(원)	2,203,000/532,000
시가총액(십억원)	24,485.1
시가총액비중(%)	0.42
발행주식수(천주)	14,237.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7.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98.2
외국인지분율(%)	18.57
주요주주 지분율(%)	
박정원 외 26 인	41.08
국민연금공단	9.9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1,853.0	25,245.2
영업이익(십억원)	1,794.7	2,509.5
순이익(십억원)	919.6	1,312.7
EPS(원)	23,291	36,197
BPS(원)	147,961	193,222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8,132.9	19,784.1	21,424.9	23,458.9
영업이익	1,003.8	1,062.7	1,717.3	2,226.1
세전이익	593.0	490.2	1,655.2	2,152.2
순이익	(226.2)	75.8	697.2	950.0
EPS	(10,562)	3,546	33,309	45,060
증감율	적지	흑전	839.34	35.28
PER	(24.14)	220.25	45.39	33.56
PBR	3.28	9.56	10.13	8.18
EV/EBITDA	11.49	16.34	15.91	12.69
ROE	(14.57)	4.99	31.31	28.65
BPS	77,764	81,660	149,217	184,846
DPS	2,000	4,000	6,000	6,000



Analyst 김민경 minkyung.kim@hanafn.com

두산 (000150)**전방 수요 지속 상향조정 중****3Q26 Preview: CCL 전방 수요 지속 상향 조정 중**

26년 3분기 전자BG는 매출액 7,659억원(YoY +74%, QoQ +13%), 영업이익 2,243억원(YoY +116%, QoQ +11%, OPM 29.3%)을 기록할 전망이다. Vera Rubin 양산 본격화에 따라 AI 서버용 CCL 출하가 증가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장비 및 광모듈용 CCL 수요가 기대치를 상회하며 지난분기에 이어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할 전망이다. 특히 Low end 생산라인에서 생산되는 광모듈용 CCL의 경우 연간 예상 매출 규모가 연간 2천억원 수준에서 3천억원 규모까지 3개월만에 50% 가량 상향 조정되었다. AI 데이터센터 내 인터커넥트 중요도가 상승함에 따라 800G 및 1.6T 광모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분기에도 신규 생산라인의 양산 개시로 네트워크용 CCL 생산능력이 현 수준 대비 25%가량 확대되며 외형과 수익성 모두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규모 증설이 중장기 성장 견인

두산은 최근 9,684억원 규모의 증설을 발표했다. 국내 및 중국 창수 법인에 각각 4,210억원, 5,474억원의 투자가 집행되며 투자 자금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조달 계획이다. 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강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내 인터커넥트 중요도 상승에 따른 광모듈 및 네트워크 CCL 수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된다. 금번 대규모 증설에 따라 두산 전자 BG의 CCL 생산능력은 26년 연간 2.8조원에서 28년 5.4조원, 2029년 6.8조원까지 확대되며 생산능력 확보에 따라 신규 고객사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두산은 M9급 CCL 등 차세대 제품에 대한 개발을 완료해 향후 믹스 개선에 따른 실적 업사이드 또한 발생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목표주가 242만원 유지

두산에 대해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242만원을 유지한다. AI 데이터센터 수요로 인해 하이엔드 CCL이 구조적 성장 국면에 있다는 점과 두산 전자BG의 기술 경쟁력을 감안하면 글로벌 Peer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한다. 글로벌 CCL 공급사인 EMC, ITEQ, Shengyi Tech의 28년 예상 PER은 17.2배로 해당 멀티플 적용 시 전자 BG의 기업가치는 28조원을 상회한다. 아울러 27년부터 실트론의 실적 기여가 시작된다는 점, 12인치 웨이퍼 또한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실적 상향 여력도 충분하다.

2026년 9월 29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3,000,000원
현재주가(9.28) 1,499,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89.74
52주 최고/최저(원)	2,270,000/191,700
시가총액(십억원)	111,965.9
시가총액비중(%)	1.97
발행주식수(천주)	74,693.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97.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119.2
외국인지분율(%)	37.82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전자 외 4인	23.77
국민연금공단	9.9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4,341.9	18,351.0
영업이익(십억원)	1,960.7	3,766.2
순이익(십억원)	1,616.5	3,086.4
EPS(원)	20,005	38,316
BPS(원)	146,737	186,438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0,294.1	11,314.5	14,522.5	18,200.1
영업이익	735.0	913.3	2,105.3	4,753.8
세전이익	797.3	895.8	2,173.4	4,791.4
순이익	679.1	706.1	1,605.5	3,700.0
EPS	8,752	9,099	20,689	47,679
증감율	60.59	3.96	127.38	130.46
PER	14.15	28.03	72.45	31.44
PBR	1.08	2.04	10.19	7.79
EV/EBITDA	5.87	10.44	36.78	19.91
ROE	8.16	7.70	15.43	28.39
BPS	115,152	124,850	147,136	192,526
DPS	1,800	2,350	2,350	2,350



Analyst 김민정 minkyung.kim@hanafn.com

삼성전기 (009150)**다시 이익 상향조정 구간 진입****대규모 FCBGA 투자 공시 발표**

삼성전기는 금일 세종과 베트남에 각각 4.3조원, 2.5조원 규모의 패키지기판 증설 공시를 발표했다. 세종지역 투자는 인프라 및 설비투자가 포함된 금액이며 베트남은 인프라를 제외한 설비투자만 포함된 금액으로 베트남 지역 인프라 투자를 포함 시 총 8.5조원 규모의 투자이다. 여타 탭티어 기판 업체와 마찬가지로 전체 투자 금액의 70% 이상은 선수금 방식으로 수령할 예정이며 현재 추가 협의중인 거래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객사별 투자 조건은 상이하나 고객사 별 요구 물량, 최소 가동률을 보장하는 조건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3~5년 수준이다. FCBGA 가격은 상방이 열려있는 구조로 공급부족 심화에 따라 추가 업사이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일부 사업장의 경우 27년 하반기부터 일부 생산라인 가동이 시작되며 28년 본격 가동 계획이다. 글로벌 FCBGA 공급업체들의 대규모 증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CBGA의 리드타임은 정상 수준인 12주를 대폭 상회하는 48~56주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전체 IT 부품 업종 내 가장 심한 공급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AI 가속기 및 서버 CPU 수요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베딩 기판 등 차세대 기판의 생산수율 등을 감안했을 때 공급자 우위 시장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3Q26 Preview: 환율을 넘어서는 업황

26년 3분기 매출 3조 8,345억원(YoY +33%, QoQ +11%), 영업이익 6,615억원(YoY +154%, QoQ +50%, OPM 17.3%)을 기록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에도 불구하고 MLCC 및 패키지 기판 판가인상 효과가 영업이익 호조를 견인하고 있다. MLCC의 경우 9월말~10월 전장 고객사들의 연간 공급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데 삼성전기는 27년 전체 MLCC 매출의 60~70% 미만으로 LTA 비중을 제한하려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객사의 수급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패키지솔루션 부문 또한 FCBGA 및 BT 기판 판가인상 및 스펙 상향에 따른 믹스 개선이 이익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목표주가 300만원 유지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300만원을 유지한다. 3분기 실적발표 시즌을 기점으로 MLCC 및 FCBGA 판가인상 및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27~28년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구간에 재차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기는 직납 거래선상 MLCC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AI 서버 고객사의 높은 가격 수용력을 고려했을 때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판가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 패키지 기판 또한 공급자 우위 시장 환경을 기반으로 분기별로 가파른 판가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익률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유럽 자동차 판매 동향(2026년 8월)

유럽 내 전기차 경쟁심화와 중국 브랜드들의 점유율 상승 | 2026.9.29



투자 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Key Insight: 유럽 시장은 EV 전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들의 점유율이 상승 중

산업

- 유럽 자동차 판매(EU+UK+EFTA 기준)는 8월 및 8월 누적으로 각각 5.3%/5.8% (YoY) 증가하며 호조 지속
-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EV 판매가 시장 지원 정책과 공급 모델 확대 등으로 증가하며 전체 시장을 견인
- BEV/PHEV 판매(전체 차종 중 비중 각각 23%/10%)는 8월 각각 52%/14% (YoY) 증가, 8월 누적으로도 각각 39%/22% (YoY) 증가
- HEV 판매(비중 36%)는 8월 및 8월 누적으로 각각 3%/10% (YoY) 증가. 여전히 증가 중이나 증가폭은 둔화
- 반면, 가솔린/디젤 판매는 8월 누적으로 각각 18%/19% (YoY) 감소하면서 비중도 21%/9%로 하락
- 업체별로 보면, 테슬라가 8월/누적 +4%/+43% (YoY), BYD는 +128%/+144%, 상해기차는 +32%/+20%. 립모터는 +220%/+445% 기록

주가

- 유럽 내 현대차/기아의 8월 판매는 -30%/+16% (YoY). 8월 누적은 -13%/+9% (YoY) 기록
- 양사 합산 기준으로 8월 및 누적 -9%/-2% (YoY) 기록. 8월 누적으로 현대차/기아/합산 점유율이 -0.7%p/+0.1%p/-0.6%p (YoY) 변동
- 기아가 중 소형 전기차 모델을 투입하면서 점유율을 방어한 반면, 현대차는 관련 효과의 부재로 전기차 경쟁심화에 부정적 영향
- 유럽 내 중 소형 전기차, 특히 중국 브랜드들의 수출 물량 및 현지생산 물량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 필요
- 향후 투입될 신형 전기차 모델들의 성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완성차 Valuation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현대차/기아: 8월 현대차/기아 유럽 소매판매 -30%/+16% (YoY)

소매판매

- 현대차 8월 유럽(EU+UK+EFTA) 소매판매(이하 모두 ACEA 기준) 2.6만대(-30% (YoY)). MS 3.1%(-1.6%p)
- 기아 8월 유럽 소매판매 3.6만대(+16% (YoY)). MS 4.4%(+0.4%p)
- 양사 합산 8월 소매판매 6.2만대(-9% (YoY)), MS 7.5%(-1.2%p)
- 8월 누적 현대차/기아 유럽 소매판매는 -13%/+9% (YoY). 합산은 68.6만대(-2% (YoY)), MS 7.5%(-0.6%p)로 하락

친환경차

- 현대차 8월 유럽 전기차 판매 0.6만대(-11% (YoY)). EV/PHEV -5%/-23%. 모델별 아이오닉5/6 -22%/-39%, 캐스퍼EV -10%
- 기아 8월 유럽 전기차 판매 1.4만대(+34% (YoY)). EV/PHEV +104%/-59%. 모델별 EV2/3/4/5 4,153대/3,778대/1,674대/2,311대
- 양사 합산 8월 유럽 전기차 판매 2.0만대(+31% (YoY)), 비중 35.4%(+8.9%p (YoY)). MS는 6.0%(-0.4%p (YoY))
- 양사 합산 8월 누적 유럽 전기차 판매 22.3만대(+19% (YoY)), 비중 29.4%(+4.7%p (YoY)). MS는 6.0%(-0.7%p (YoY))
- 8월 현대차/기아의 유럽 HEV 판매는 0.6만대/0.5만대(MS 1.7%/1.6%, -1.0%p/-0.6%p (YoY)). 합산 1.1만대(MS 3.3%, -1.6%p)
- 8월 누적 현대차/기아의 유럽 HEV 판매는 7.3만대/7.5만대(MS 2.4%/2.4%, -0.4%p/-0.3%p). 합산 14.8만대(MS 4.8%, -0.7%p)

유럽시장: 8월 전체 +5%, 전기차 +39%, 하이브리드차 +3%, 가솔린차 -24%, 디젤차 -23%

소매판매

- 8월 유럽(EU+UK+EFTA 기준) 자동차 소매판매는 83.3만대로 5% (YoY) 증가
- 국가별로는 영국(+14%)/스페인(+12%)/프랑스(+7%)/이탈리아(+3%)/독일(+3%) 순으로 증가
- 8월 누적으로 유럽 자동차 소매판매는 919.3만대(+6% (YoY))

업체별

- (유럽) 폭스바겐/르노/스텔란티스의 판매는 -4%/-4%/+4% (YoY). MS는 25.3%(-2.4%p)/8.6%(-0.9%p)/13.2%(-0.2%p)
- (미국) 포드/테슬라의 판매는 -14%/+4% (YoY) 변동. MS는 2.7%(-0.6%p)/1.9%(+0.0%p)
- (일본) 토요타/혼다/닛산의 판매는 +4%/+12%/-1% (YoY) 변동. MS는 7.4%(-0.1%p)/0.6%(+0.1%p)/1.4%(-0.1%p)
- (중국) 상해기차/BYD/립모터의 판매는 +32%/+128/+220% (YoY) 증가. MS는 2.5%(+0.5%p)/3.1%(+1.7%p)/0.9%(+0.6%p)

친환경차

- 8월 유럽 전기차(BEV+PHEV) 판매 33.7만대(+39% (YoY), 비중 40.5%(+9.8%p (YoY)). BEV/PHEV가 각각 +52%/+13%
- 주요국 중 독일/프랑스/영국이 각각 +49%/+84%/+31% (YoY).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및 국제 유가 상승이 수요 회복에 영향
- 8월 유럽 하이브리드차(HEV) 판매 27.3만대(+3% (YoY), 비중 32.8%(-0.6%p (YoY))
- 8월 유럽 가솔린차/디젤차 판매 15.4만대(-24%)/4.9만대(-23%), 비중 18.5%(-7.0%p)/5.8%(-2.1%p)
- 8월 누적 기준 유럽 전기차(BEV+PHEV) 판매 309.8만대(+33% (YoY), 비중 33.7%(+6.9%p (YoY)). BEV/PHEV가 각각 +39%/+22%
- 8월 누적 기준 유럽 하이브리드차(HEV) 판매 333.4만대(+10% (YoY)), 비중 36.3%(+1.5%p (YoY)). 가솔린차/디젤차는 각각 -18%/-19%

2026년 9월 29일 | 산업분석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9월 28일

팬오션(028670)

BUY | TP 9,000원 | CP 5,690원

대한해운(005880)

BUY | TP 2,500원 | CP 2,055원

운송

VLCC 시장 초과열, 한국 선사에게도 기회의 장

VLCC 하루 운임 \$70만까지 상승

최근 VLCC 평균 스팟 운임이 \$70만/day 까지 상승하며 초과열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노선 별로는 중동-중국/싱가폴 간의 VLCC 스팟 운임이 일간 \$120만 이상으로 상승했고, US Gulf-중국 간의 운임도 \$40만/day로 상승했다. 중동에서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부과되고 있고, US Gulf-히말봉 루트와 양부-수에즈 루트에서 VLCC가 움직이다보니 톤마일이 증가하면서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에는 VLCC 환적과 중동 인근 대기 선박이 늘어나면서 VLCC Shortage가 강화되고 있는 환경이다. 2025년 평균 VLCC의 스팟 운임은 \$55,000/day 었다.

전쟁 이후에도 VLCC는 간다

중동 전쟁이 매듭을 짓고 호르무즈 통항이 가능해진다면 글로벌 VLCC의 비효율적 사용(아시아 원유의 미국 선적/환적/수에즈 우회 등)이 줄어들면서 VLCC 시장의 과열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전히 과거 대비로는 높은 수준의 운임이 전망되는데, 1)각국의 재고보충 수요가 VLCC 스팟 수요를 촉발시킬 예정이고, 2)중동을 중심으로 통항 대기 수요가 늘어나며, 3)미국에서의 에너지 수입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재 VLCC의 평균 선령은 13.6년으로 높고, 제재 대상 선박 비중도 18% 인 바, 2030년까지는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시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팬오션의 VLCC 3년 대선 계약: 연간 영업이익 기여도 370억원 전망

팬오션은 9월 28일 공시를 통해 VLCC 1척에 대해 장기대선계약(3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1,481억원 상당으로, 일간 \$10만의 운임으로 책정되었다. 글로벌 VLCC(Frontline 등)의 대선계약의 손익분기는 \$24,000/day 내외임을 감안하면, 금번 계약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연간 370억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계약기간 전체를 합산하면 1,110억원 이상이다. 최근 높아진 VLCC 스팟 운임에 대응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수요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 환경에서는 국내 선사도 높은 운임의 장기계약을 향유할 수 있다. 특히 팬오션/대한해운은 VLCC 운용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추가 계약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판단이다.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7월 ESS Battery : 북미 누적 +30% 성장

2026년 7월 ESS Data in detail | 2026.9.28



투자의견

Overweight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김희제

지역별 ESS 배터리 신규 설치량

(단위: GWh, %)

	지역	Grid		BTM		Total			Grid		BTM		Total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7월	글로벌	22.3	7.9	7.6	56.9	29.9	17.2	누적 (1~7월)	156.9	30.7	53.3	52.7	210.2	35.7
	북미	5.3	19.4	1.0	30.0	6.2	20.9		34.8	30.0	6.6	30.0	41.4	30.0
	유럽	2.5	686.7	1.9	117.2	4.4	267.9		15.9	199.8	11.0	117.2	26.9	159.5
	중국	12.4	-14.0	2.1	12.8	14.5	-11.0		61.3	-11.8	16.8	12.8	78.1	-7.5
	기타	2.1	106.5	2.6	92.4	4.7	104.4		44.8	143.4	18.9	92.0	63.7	125.5

자료: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하나증권

주1) BTM(Behind The Meter) : 전력망계를 기준으로 고객 측에 위치한 분산 에너지 자원. 가정, 건물, 공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주로 건물이나 시설 내의 태양광 패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이 해당. 발전소, 송배전망 등 전력회사가 관리하는 FTM(Front The Meter)과 대비되는 개념

전력망(Grid) 시장 내 연계 유형별 ESS 배터리 신규 설치량

(단위: GWh, %)

	연계 유형	설치량(GWh)			설치량(GWh)	
		설치량(GWh)	YoY(%)		설치량(GWh)	YoY(%)
7월	Grid	17.7	85.4	누적 (1~7월)	93.1	50
	Wind+Solar	0.4	-98		3.3	-56.9
	Wind	0.4	-33.2		3.1	-51.7
	Solar	3.7	90.8		33.7	49.4
	기타	0	-28.8		1.4	98.4

자료: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하나증권

글로벌 ESS 케미스트리별 신규 설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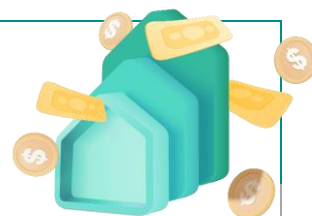
케미스트리 • 7월 글로벌 ESS 케미스트리별 비중은 LFP 92.1%(MoM -3.2%p), NCM 3.7%(MoM +1.5%p), Flow Battery 1.4%(MoM +0.7%p), Sodium based 0.4%(MoM +0.1%p), 기타 2.4%(MoM +1.0%p)

시사점 및 의견: 미국 2032년 ESS 누적 설치량 1TWh 전망

- 7월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Grid+BTM)은 29.9GWh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2026년 누적(1~7월) 기준으로는 210.2GWh의 신규 ESS가 설치되며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월별 설치량 변동성이 큰 특성을 감안하면 누적 성장을 흐름이 중요하네, 여전히 30%를 상회하는 고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최근 ESS 출하량의 전월 데이터 사후 수정 폭이 매우 커, 이를 반영하여 7월 데이터는 9월 발간하였으며, 향후 데이터 또한 동일한 시차를 두고 발간 예정).
- 신규 설치량의 75%를 차지하는 전력망(Grid) ESS의 경우, 7월 22.3GWh(+7.9%)가 신규 설치됐다. 2026년 누적(1~7월) 글로벌 Grid ESS 설치량은 156.9GWh로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 북미 Grid ESS 설치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고 7월 누적 기준 30% 증가했다. 유럽은 2.5GWh, 누적 15.9GWh의 Grid ESS가 신규 설치되며 월간 및 누적 기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 성장률(687%, 200%)을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 수요가 증가하면서 ESS 설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전체 ESS 설치량 중 25%를 차지하는 BTM(Behind The Meter) 시장에서는 7월 글로벌 기준 7.6GWh(YoY +57%)의 ESS가 신규 설치돼 가동을 시작했다. 데이터센터 및 상업-산업용(C&I) 전력 수요 확대를 중심으로 BTM 시장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전력망(Grid) 시장 내 연계유형별 설치량을 살펴보면, 송전망에 직접 연결돼 전력 상황에 따라 충·방전을 수행하는 독립형 BESS(Stand-alone BESS)가 7월 17.7GWh 규모로 신규 설치되며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 한편, 미국 에너지저장연합(ESC)는 보고서를 통해 2032년 말까지 미국 내 ESS 설치 규모를 출력 기준 225GW(에너지 용량 기준 1TWh)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ESC는 미국 ESS 저장용량이 850GWh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향후 10년간 2천500억 달러(약 339.9조원) 이상의 전력 시스템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 송배전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가용 전력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ESS의 전력망 설치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시장 성장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엘앤에프(9월 17일), 포스코퓨처엠(9월 22일)은 배터리 셀 제조사와 ESS용 LFP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선제적으로 수주를 확보하고 있다. 양극재 공급계약은 통상 셀 수주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이는 셀 업체의 북미 ESS 수주 파이프라인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관련 기업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관심주제: 원전, 데이터센터, 공공주택

건설 Weekly | 2026.9.29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9/18) 대비 7.0%p 하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외인 모두 매도했다. 기관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매도, 삼성물산을 매수했다. 외인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E&A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매도했다. 대미투자의 국회 보고 소식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9.8로 3주 만에 반등(+0.2p)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6주 연속 상승(+0.09%), 전세가는 67주 연속 상승했다(+0.10%). 수도권 매매가는 82주 연속 상승(+0.17%), 전세가는 83주 연속 상승했다(+0.16%). 서울 매매가는 87주 연속 상승(+0.14%), 전세가는 84주 연속 상승(+0.19%)했다. 지방광역시는 상승(+0.01%), 기타지방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60주 연속, 기타지방 56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7%, +0.03%).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05%), 대전(+0.03%), 인천(+0.01%), 전남광주(+0.01%)가 상승, 대구(-0.01%), 부산(-0.02%)이 하락했다.
- 대미투자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의 국회 보고가 있었다(9/27).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복합화력발전소를 확정했다. 투자규모 223억달러로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된다는 판단이다. 후속 후보 사업(2,3호)으로 대형원전과 알래스카LNG가 논의됐다. 대형원전은 8기(AP1000 6기, APR1400 2기)를 건설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총 사업비는 1,200억달러다. 후속 프로젝트(2,3호기)는 상업적 합리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투자여부는 추후에 확인 가능하다. 대미투자 공식 발표는 미국 내부 절차 완료 후 미국 대통령이 할 예정이다.
- SMR과 관련하여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뉴스가 있었다. 테라파워 캐머리 1호 프로젝트의 시공사인 백텔이 철수하기로 결정되면서, 현대건설이 내년 해당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비 40억달러 규모로 2030년 시운전, 2031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26년 4월에 건설을 시작한 현장이다. 삼성물산은 카이로스파워 50MW 실증원자로 엔지니어링 업체로 선정됐다. 이어 삼성물산은 카이로스에 지분투자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분 투자금액은 7천만달러다. SMR 파트너십은 Nuscale, GE Vernova-Hitachi에 이어 세번째다.
- 데이터센터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SGC에너지의 군산 AIDC를 수주했다. 총 300MW 구축 사업 중 1단계 60MW이며, 향후 예정된 240MW 규모 후속사업에 대한 우선협상권도 확보했다. 10월 착공, 사업비는 8,700억원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MEP 중 냉각과 전력 공급 설비를 담당하며, KT클라우드가 UPS, 배터리, 자동제어 등을 담당한다. GS 동해AIDC도 착공 수순에 들어간다. 30일 전기선로 지중화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어 공사 시작을 준비한다. 이어 다음달 초순 중 건축허가에 대한 승인이 나올 전망이다. GS 관계자 100명 이상의 인력이 상주하며 준비 중이며, 11월 착공 계획이다.
- 국토부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9/22).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골자다. 정부 주도 건설이 59.3만호(건설임대 35만호, 공공분양 24.3만호). 26년 6.4만호, 27년 8.2만호, 28년 10.4만호, 29년 13.2만호, 30년 21.1만호 착공 계획으로, 매년 25%씩 증가한다. 공공 수주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계룡건설 등)의 수주잔고 증가 및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
-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GS건설을 TOP PICK으로 추천한다. 하반기 데이터센터에서 2조원 수주를 기대하는 DL이앤시를 차선호주로 추천한다. LH의 발주가 본격화되고 내년부터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공 비중이 높은 중소형건설사(계룡건설 등)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형원전은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이끌어갈 사업주가 명확히 나타나는 시점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건은 중동 분쟁 종료 이후에 사도 늦지 않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9/21	1,857,000	1,768,000	-4.79%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단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SK이노베이션 (096770.KS)	9/21	136,600	158,200	15.81%	- 정제마진 회복과 윤활유 사업의 견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의 실적 기대 - SK온의 유럽 판매 회복과 북미 ESS 배터리 공급 확대가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부각
두산 (000150.KS)	9/21	1,447,000	1,423,000	-1.66%	-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고부가 CCL 수요 급증으로 전자BG 실적 고성장 전망 - 대규모 국내·중국 생산능력 증설과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기대
DN오tom티브 (007340.KS)	9/21	49,300	50,700	2.84%	- 글로벌 공장기계 업황 회복과 우주항공방산·로봇 등 고수익 산업향 수주 확대 - Heller 인수 시너지 2027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 높아
세아베스틸지주 (001430.KS)	9/21	45,050	44,600	-1.00%	- 오일&가스·방산·반도체 등 전방 수요 회복과 공격적 영업전략으로 특수강 판매 증가 - 미국내 특수합금 공장과 사우디 무게목강관 공장의 사업 본격화로 외형성장 기대
해성디에스 (195870.KS)	9/21	57,500	60,000	4.35%	- 로봇·산업용 반도체 확대로 주력 제품인 리드프레임의 판가 및 출하량 개선 기대 - 창원 생산능력 증설을 기반으로 리드프레임·패키지기판 공급 확대 가능
올릭스 (226950.KQ)	9/21	111,600	104,400	-6.45%	- 로레알·Weiss의 1,108억원 투자로 siRNA 기술력 입증 및 R&D 재원 확보 - OLX702A 2상 진입과 OLX104C 임상 결과 등 하반기 모멘텀 기대
RFHIC (218410.KQ)	9/21	60,100	57,300	-4.66%	- 방산 매출 확대와 RF머트리얼즈 실적 호조로 이익 성장세 지속 - 미국 Upper C-band 주파수 경매와 국내 5G SA-6G 투자 재개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
티앤엘 (340570.KQ)	9/21	27,300	28,000	2.56%	- 주력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의 판매 회복과 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상반기 수익성 개선 - 핵심 고객사 Church & Dwight의 트러블케어 패치가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
더블유씨피 (393890.KQ)	9/21	10,290	10,110	-1.75%	- 전기차용 분리막 수요 회복과 함께 ESS용 분리막 출하 확대에 따른 가동률 상승 기대 - 북미·국내 ESS향 공급 확대와 신규 고객사 다변화를 기반으로 실적 회복 진행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63%	+2.07%p	+77.94%	+15.3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이노베이션 (096770.KS)	9/21	136,600	158,200	15.81%	- 정제마진 회복과 윤활유 사업의 견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의 실적 기대 - SK온의 유럽 판매 회복과 북미 ESS 배터리 공급 확대가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부각
GS건설 (006360.KS)	9/14	38,500	35,550	-7.66%	- 건축·주택 원가를 정상화와 비용 선반영 효과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 하반기 데이터센터 수주 가능성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높일 핵심 모멘텀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9/14	157,000	166,900	6.31%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SK하이닉스 (000660.KS)	9/7	1,647,000	1,768,000	7.35%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만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71,000	0.00%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034,000	-5.74%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주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주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33,000	16.12%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5,700	-5.63%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중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499,000	31.26%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풍산 (103140.KS)	8/3	71,200	77,900	9.41%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74,200	-5.53%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215,000	8.58%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6.28%	-1.21%p	+40.94%	-21.72%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 시테크TOP10 (485540)	2026.07.16	16,205	15,515	-4.3%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HANARO 미국 에이전트AI TOP2+ (022710)	2026.09.22	10,655	10,620	-0.3%	- 에이전트 AI 밸류체인 중 모델 기업과 인프라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패시브 ETF. 상위 TOP2 종목을 각각 25%씩 편입하는 집중된 구조 - 9월 초 공개된 메타의 AI 에이전트 서비스 흥행으로 AI 에이전트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에이전트 AI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는 AI 모델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41,200	39.4%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AI 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8,400	-0.2%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21,245	3.5%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RISE 미국AI클라우드 인프라 (0127R0)	2026.09.22	16,720	16,465	-1.5%	- 미국 상장 네오클라우드 4개 기업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6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네오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전력, 광통신 등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을 함께 편입하는 것이 특징 - AI 연산 수요 증가로 데이터센터의 전력·네트워크 등 인프라 병목이 심화되는 가운데,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는 네오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의 동반 수혜 기대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32,000	-13.2%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275	-7.1%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교제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83.82	-5.2%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인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엔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95.02	-70.9%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FTXL (미국 반도체 펄리티)	2026.09.22	247.92	85.14	-65.7%	• 미국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기업 중 이익, ROA, 모멘텀, 현금흐름 등 펀더멘털 및 주가 흐름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ETF. 현금창출력을 기반으로 편입 비중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 •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경계감도 동반 상승하는 구간에서, 특정 종목 쏠림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C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100.05	7.5%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역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펄리티 주식)	2026.03.23	75.24	541.50	619.7%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NCLD (AI 컴퓨팅 인프라)	2026.09.22	24.84	53.02	113.4%	•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확보가 주요 병목으로 부상함에 따라, 고성능·고효율 AI 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가치가 부각될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72.99	-5.3%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57.60	0.9%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27	9.28	9.29	9.30	10.1	10.2	10.3
	- 일본 8월 PPI (3.7%, 이전치 3.6%) - 중국 8월 산업생산 (4.2%, 이전치 11.2%)	- 유로존 9월 소비자대지수 (E -16.5, 이전치 -16.5) - 미국 7월 FHFA 주택가격 지수 (E 0.1%, 이전치 0.0%) -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수 (E 89.2, 이전치 89.4)	- 한국 8월 광공업생산 (E 4.3%, 이전치 3.6%) - 일본 8월 소매판매 (E -1.0%, 이전치 2.1%) - 일본 8월 광공업생산 (E 6.6%, 이전치 3.9%) - 중국 9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E 51.7, 이전치 51.5) - 중국 9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E 51.2, 이전치 51.4) - 미국 9월 ADP 취업자 변동 (E 72k, 이전치 38k) - 미국 8월 PCE (E 3.7%, 이전치 3.7%)	- 일본 3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 지수 (E 25, 이전치 22) - 일본 3분기 단칸 대형 서비스업 지수 (E 36, 이전치 37) - 한국 9월 수출 (E 62.4%, 이전치 68.7%) - 한국 9월 수입 (E 20.5%, 이전치 22.5%) - 미국 9월 ISM 제조업지수 (E 55.0, 이전치 54.6)	- 한국 9월 CPI (E 2.9%, 이전치 3.1%) - 일본 9월 실업률 (E 2.4%, 이전치 2.4%) - 유로존 9월 CPI (E 3.7%, 이전치 3.2%) - 미국 9월 실업률 (E 4.1%, 이전치 4.1%)	
10.4	10.5	10.6	10.7	10.8	10.9	10.10
	- 유로존 8월 PPI (E --, 이전치 5.8%) - 미국 9월 ISM 서비스업 지수 (E 55.2, 이전치 55.4)	- 독일 8월 공장수주 (E --, 이전치 2.5%) - 유로존 8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0.6%)	독일 8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1.1%)	미국 8월 도매 재고 (E --, 이전치 --)	미국 10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E --, 이전치 48.1)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